

작년 광주재난안전 통계연보 발간

교통사고·화재 사망자 946명

(최근 5년간)

사회재난 재산피해도 198억 집계

최근 5년간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등 사회재난으로 946명이 사망했고 재산피해도 19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시는 17일 '2017 광주재난안전 통계연보' (2016년 12월 31일 기준)를 발간했다 밝혔다.

재난안전 관련 정보만을 모은 통계연보 발간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보에 실린 최근 5년간 자연재난 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광주에서 강풍·태풍·호우 등 자연재해로 재산피해 185억원과 5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태풍(176억원), 강풍(8억원), 대설(6천600만원), 호우(500만원) 순이다. 인명 피해는 폭염 4명, 태풍 1명 등이다.

교통사고·화재·산불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규모는 재산피해 198억원과 사망자 946명이다. 이중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508명이고, 감염병(342명), 화재(30명), 수난(28명), 추락(21명) 순이다.

그동안 광주시는 재난안전에 대한 종합 통계자료가 없어 이와 관련한 사업을 발굴하거나 정책을 수립할 때 어려움을 겪었다.

통계연보는 최근 5년간(2012~2016년) 자연재난·사회재난·안전관리 등 유

형별로 분산된 재난안전 관련 통계를 37개 분야로 종합해 담았다.

특히 재난유형별 발생원인과 피해 상황,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분석할 수 있도록 통계자료를 알기 쉽게 정리했다.

안전관리 분야는 자살·범죄·구조·구급 등 발생 건수와 대상별·월별·연령별 등으로 구분해 수록했다.

허기석 광주시 안전정책관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앞으로 매년 발간할 계획이다"며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정책 수립과 실행 등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김남중 기자 5555knj@metroseoul.co.kr



대통령에게 쓴 손편지

광주 무등초 5학년2반 학생들이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대통령에게 쓴 손편지를 들고 있다. 손편지는 청와대에 보냈고 학생들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답장을 받았다. /연합뉴스

광주 제2순환로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호응

광주시가 추진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제2순환도로 통행료 감면'이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제도는 광주시가 미세먼지 예방과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6년 7월 하이패스 개통과 함께 시행했다.

대상은 광주시에서 사용 본거지를 둔 전기차·태양광차·수소차·배기량 1천600cc 미만의 하이브리드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다.

광주시는 2019년 말까지 이들 차량이 제2순환도로를 이용하면 정상요금의 50%를 할인해준다.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은 시행 첫해인 2016년 171명이 신청한 데 이어 2017년 270명, 올해 6월 11일까지 163명 등 2년간 총 604명이 신청했다.

최근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신청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광주시도로과에서 감면카드를 발급받아 하이패스 차로가 아닌 현장수납 차로(일반TCS)에서 요금 징수원에게 카드를 제시하면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소유자나 대리인이



광주 제2순환로 1구간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감면카드를 즉시 발급받는다.

신청방법과 신청서 서식은 광주광역시 누리집에 게재돼 있다.

김남균 광주시 도로과장은 "미래형 친환경자동차 선도시를 지향하고 있다"며 "친환경차 제2순환도로 통행료 감면을 통해 전기차·수소차 보급이 확대되고 환경오염을 억제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김남중 기자

“학교 석면제거 공사땀 ‘3번 이상’ 청소해야”

광주시교육청 매뉴얼 대폭 강화

사전·사후·준공청소 나눠서 실시

광주시교육청이 학교시설 석면을 안전하게 제거하기 위한 매뉴얼을 대폭 강화했다.

1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석면 제거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공사시 3번 이상의 청소와 3번 이상의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다음해 계획을 매년 세우던 기존과 달리 2019년부터 2027년까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각 학교의 모든 석면 모니터링단에 환경부 전문가를 1명에서 2명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모니터링단 조사 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석면감리인, 해체·제거업자·후속공정, 폐기물처리업자 선정을 기존엔 15일 전까지 했으나 앞으로는 45일 전까지 선



광주시교육청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주관한 직선 2기 공약이행과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시교육청 전경 사진. /뉴스시스

정을 완료토록 했다.

각 공사 20일 전에는 학부모·시민 대상 설명회도 진행한다.

청소는 사전 청소와 사후 청소, 준공 청소로 나눠 세 차례에 걸쳐 실시한다.

각 학교별로 운영하는 모니터링단은 석면 제거 작업 전, 해체, 제거 후에 각각 모니터링을 한다. 모니터링을 통과하지 못하면 다음 공정을 진행하지 못한다.

광주시교육청은 석면 제거 공사를 진행하는 학교 출입구에 경고 표지판을 설치해 지역 주민들의 안전도 함께 살핀다.

광주시교육청 김두환 교육시설과장은 "공사 중에 석면 분진이 날리지 않도록 습윤제를 충분히 사용하는 것부터 시작해 모든 공정마다 안전을 최우선시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김남중 기자

‘구례 락페스티벌’ 뜨거운 여름밤의 향연

전남 대표 페스티벌 '2018 구례 자연드림 락페스티벌'이 뜨거운 여름밤의 시원한 탈출의 문을 열 준비를 마쳤다. 오는 8월 25일 전남 구례자연드림파크가 그 무대다.

레자연드림파크는 17일 올해로 4주년을 맞은 구례 자연드림 락페스티벌 개최 소식과 함께 이승환, 자우림, 로맨틱펀치, 안녕바다, 정흠밴드, 라이브유빈, 오리엔탈쇼커스, 406호프로젝트 등 8팀의 라인업을 공개했다.

'내 안의 즐거움(樂:Rock)을 찾아 떠나는 탐험'을 컨셉으로 한 '2018 구례 자연드림 락페스티벌'은 라이브의 황제 이

승환을 헤드라이너로 선정했다. '공연의 신'으로 불리는 이승환은 시원한 사우팅과 그만의 독특한 무대 연출로 압도적인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대중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자우림은 독보적인 음색과 멜로디로 오랫동안 사랑받은 대표 아티스트다. 최근 JTBC '비긴어게인2'에서 완벽한 버스킹을 선보여 많은 이들에게 영혼의 울림을 전했다. 이번 페스티벌에서 어떤 매력을 꺼낼지 기대를 모은다.

이 밖에 거침없는 에너지를 발산하는 로맨틱펀치, '별빛이 내린다'로 국민 BGM을 탄생시킨 안녕바다, 여름을 시원



하게 가르는 가창력의 정흠밴드, 통통튀는 패기의 라이브유빈, 발랄한 에너지 오리엔탈쇼커스, 독보적 음색 '406호 프로젝트'가 무대를 장악한다.

/전남 구례=오인석기자

곡성군 '낭만곡성 치맥영화제'

“영화 보고 치맥 먹고”

전남 곡성군은 오는 22일 오후 7시 30분 곡성레저문화센터론볼장에서 '제1회 낭만곡성 치맥영화제'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곡성군이 '6070 낭만곡성 영화로 청

춘어람' 사업의 일환으로 영화를 매개로 추억의 시간을 공유하고자 마련한 자리이다.

하이트진로 광주지점과 농협중앙회 곡성군지부의 협찬으로 선착순 200명에게 맥주와 통닭이 무료로 제공된다.

이날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심은경, 나문희 주연의 '수상한 그녀'를 상영하고, 영화 상영에 앞서 로즈걸스의 난타

공연과 영화 관람권 등이 주어지는 행운권 추첨 이벤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호 곡성군 지역활성화과장은 "낭만곡성 치맥영화제가 주민과 관광객들의 무더위를 식히고, 서로의 추억을 나누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행사가 유동 인구 증가를 통해 지역에 활기를 더하고, 지역의 저변 문화가 살아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 곡성=김남중기자

강진 다산수련원 '청림수련원으로' 변신

전남 강진 다산수련원이 '다산청림수련원'이란 이름으로 내년 하반기 새롭게 문을 연다.

17일 강진군에 따르면 다음 달 착공할 수련원은 강진읍 동성리 사의재 일대에 지상 3층 연면적 2천66㎡ 규모이며 생활관은 82명의 교육생이 한꺼번에 숙식할 수 있다.

강진만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정남향의 수련원은 양무정 국공체함과 보은산 등 기존 관광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수련시설로 집중적으로 육

성할 계획이다.

수련원 주변은 사의재, 보은산방아학래가 등 다산의 발자취가 남아있고 사의재 저자거리 조성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사의재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유배와 4년을 머물면서 6명의 제자를 길러낸 다산 실학사상의 모태가 된 곳이다.

다산청림수련원이 들어설 사의재 일원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크고 강진읍 상권과의 접근성도 좋다.

전남 강진=문성환 기자

몽골 박람회서 '광주 의료기관' 관광 마케팅

광주시는 17일 지역 의료기관들이 지난 15~16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2018 메디컬 코리아 몽골 의료관광 홍보 박람회'에 참가해 의료서비스의 우수성을 알리고 의료관광객 유치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광주시와 전남대병원, 청연한방병원, 라벨르의원 등 3개 의료기관, 광주의료관광지원센터, (사)광주권의료관광협회 등이 참여했다.

의료기관들은 박람회 기간 홍보전시관을 운영하고 비즈니스 미팅과 의료 체

험·상담 등을 통해 광주의료서비스의 우수성을 알렸다.

광주의료관광지원센터는 몽골 현지 의료관광 에이전시와 '의료관광 교류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환자 송출과 정보 교환 등 의료관광사업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몽골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입국 전 상담·예약과 출국 후 사후 관리까지 전 일정을 관리하는 해외 홍보센터를 울란바토르에 설치할 방침이다. /광주=김남중 기자